

Strategy

김정현의 Strategic Idea

Strategist

김정현

6915-5792

john@ibks.com

서머럴리, 좀 더 즐겨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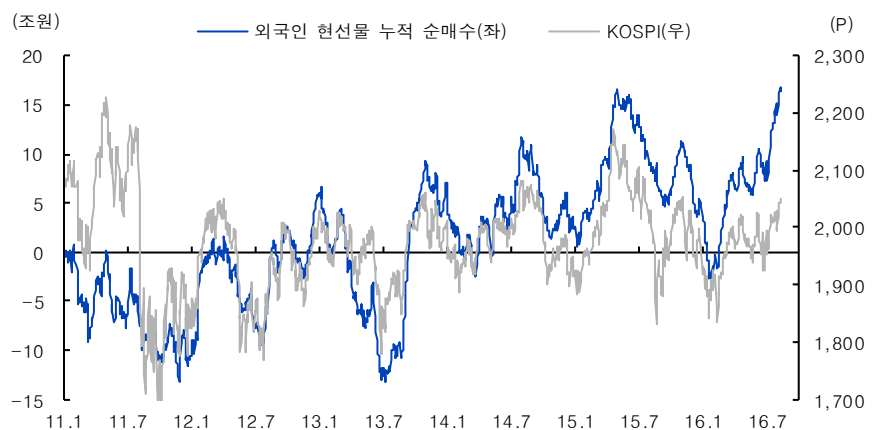
- KOSPI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050P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
- 외국인은 지난 6월 29일 이후 KOSPI에 5조 6,745억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3만계약 이상(3조 8,116억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
- 캐리 수익자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위험지표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캐리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또한 EM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역시 이어지고 있어 자산배분 차원의 외국인 순매수 유입 지속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
- 반면 최근 외국인은 IT 업종에 차익실현을 하고 경기소비재 및 산업재, 소재 업종에 순매수를 강화하는 등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어
- 그 동안 IT 업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과 같이 경기소비재 및 산업재, 소재 등 업종과 필수 소비재 등 내수 업종으로의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

KOSPI, 연중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 KOSPI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050P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이후 현물과 선물에 동반 순매수를 지속하며 KOSPI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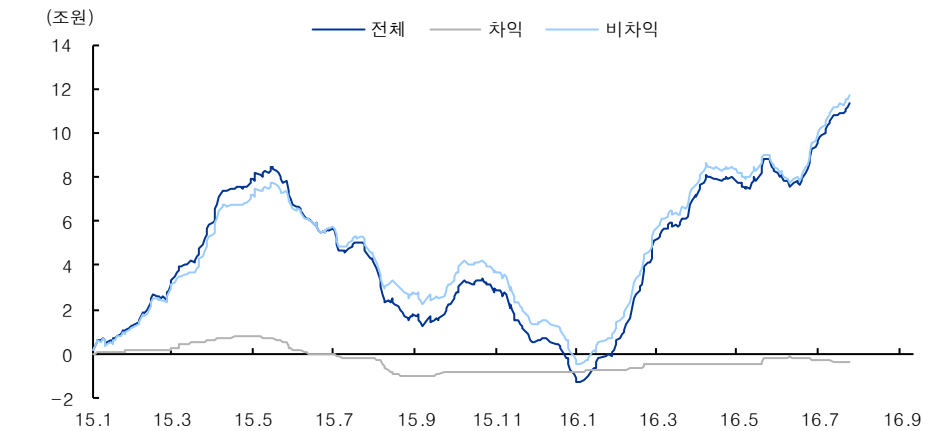
외국인은 지난 6월 29일 이후 KOSPI에 5조 6,745억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3만계약 이상(3조 8,116억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한 누적 순매수도 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지속하며 KOSPI 연중 최고치 경신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그림 2.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중심 순매수 지속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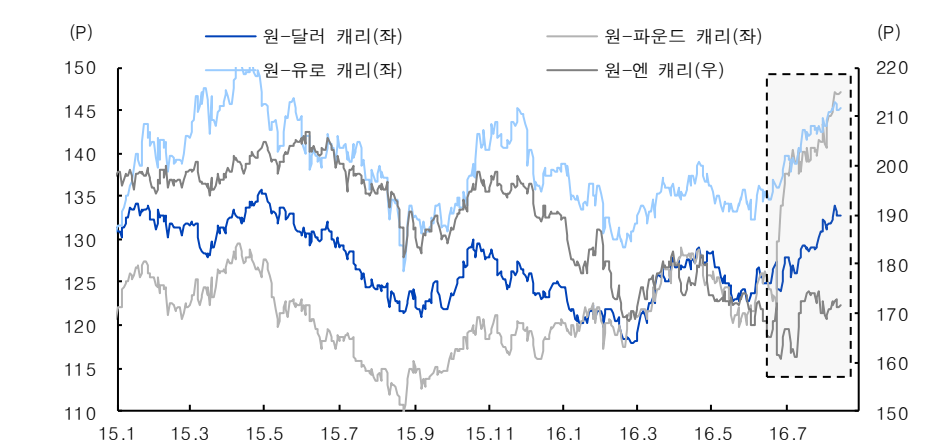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와 KOSPI 상승세 이어질 전망

지난 8월 월간 전략([IBKS Strategic Insight] 이연된 불확실성, 이어지는 정책 기대 - 2016.07.25)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듯 KOSPI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캐리자금 유입 및 자산배분 차원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통화대비 원화의 캐리 수익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EMBI Spread와 Macro Risk Index 등 위험지표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캐리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EM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역시 이어지고 있어 자산배분 차원의 외국인 순매수 유입 지속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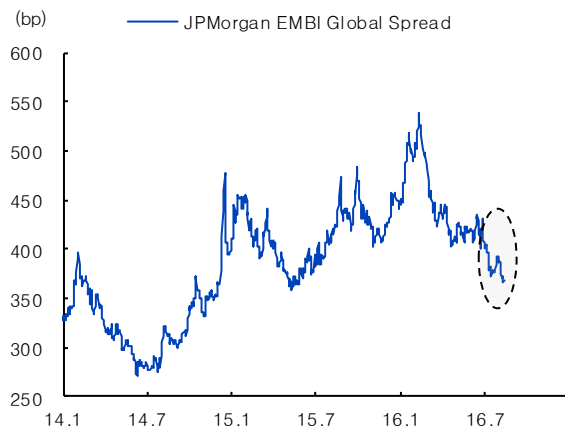
실적 요인 역시 여전히 긍정적이다. KOSPI의 12개월 선행 EPS의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익조정비율 또한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KOSPI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3. 주요 통화 캐리 수익지수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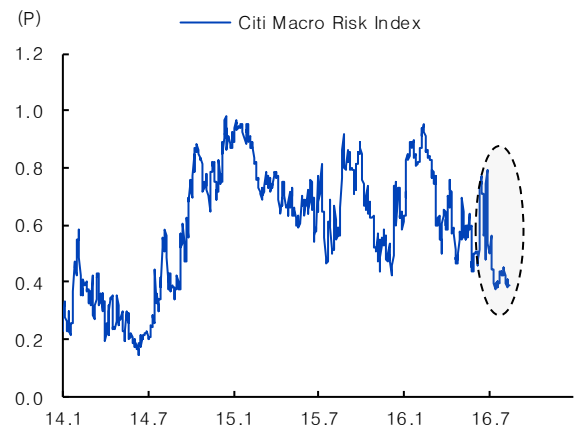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4. EMBI Spread 하향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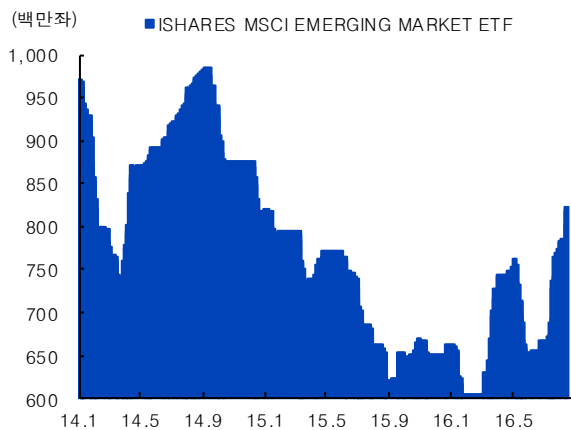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5. Macro Risk Index 하향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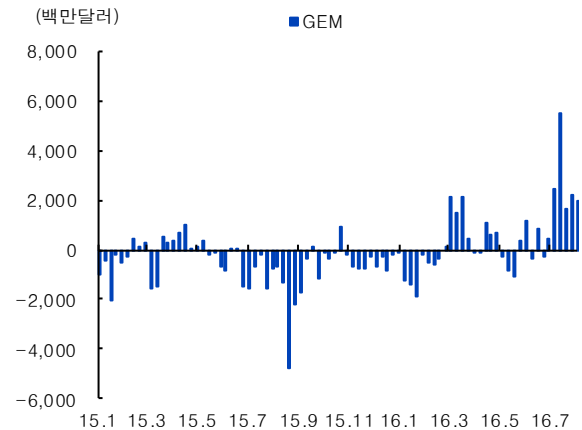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6. 신흥국 ETF로 자금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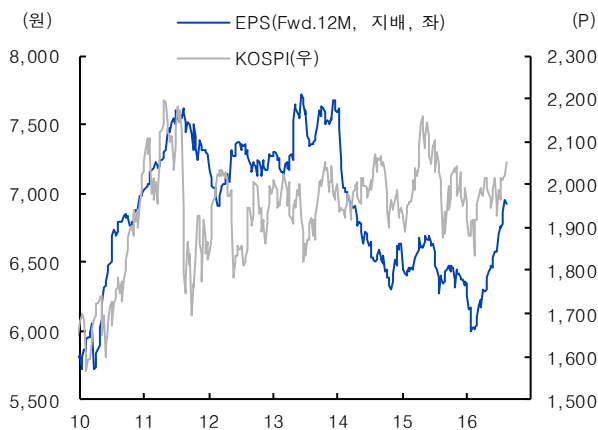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7.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



자료: EPFR, IBK투자증권

그림 8. KOSPI 12MF EPS 상향 지속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그림 9. 이익조정비율도 최근 상승세 보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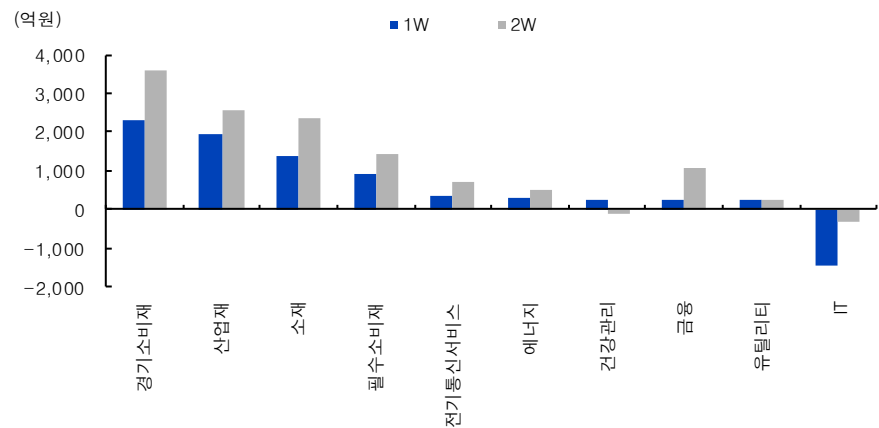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반면 최근 외국인은 IT 업종에 차이실현을 하고 경기소비재 및 산업재, 소재 업종에 순매수를 강화하는 등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한 지난 주 이후 업종별 순환매 성격의 매매패턴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싹트기 유입으로 원화의 추가 강세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와 미국 3분기 GDP 개선 가능성(애틀란타 연은 GDPNow 추정 3.5%) 및 10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은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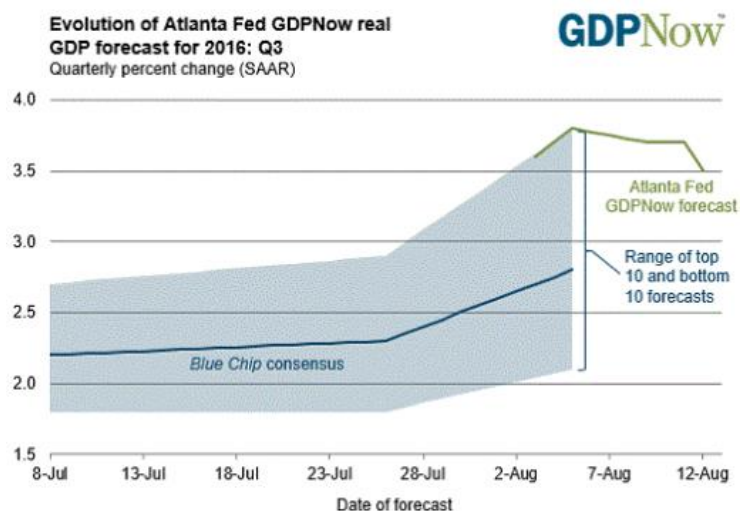
따라서 그 동안 IT 업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과 같이 경기소비재 및 산업재, 소재 등 업종과 필수소비재 등 내수 업종으로의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최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그림 11. 애틀란타 연은 GDPNow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3.5% 전망



자료: Atlanta Fed